

사설

문화부 종무실 축소

기획예산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의 종고관련 업무를 축소하려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일환으로 문화부의 종무실을 없애고 대신 문화정책국 산하에 종무과를 두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 결정에 전 종교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할 말이 있다. 온 나라가 효율적 경영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판국에 종교분야의 행정서비스라고 예외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데는 애경경영연구원과 모니터컴퍼니의 경영진단이 토대가 되었다. 두 연구원의 진단이 잘못 되었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경영진단은 현실의 효율만을 근시안적으로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진단에서 종교관련 업무에 생산성을 고려했다면 그것은 적지않은 판단착오다. 문제는 비전이다. 사업의 중요도와 전망을 놓고 현실의 대차대조표를 고려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래가 없다. 일본이 그 거대한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오랜 침체에 빠져있는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

두 연구소의 경영진단은 결국 정부가 종교의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종교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어디 한 두 가지인가. 거창하게 보면 20세기의 지구적 분쟁은 종교와 인종을 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유교와 불교 사이의 알력은 옛이야기가 되었지만 기독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중재를 누가 할 것인가.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은 자발적 운동에 맡긴다 해도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충돌하는 현실을 관장하고 그 완충역을 해 줄 기관은 오직 정부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겨레의 문화유산이 붉은 페인트로 칠갑을 해도, 또 조계사가 불법 난입과 방화와 투석전의 아수라장이 되어도 정부는 지만름 멀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공권력의 태만이다. 종교는 이미 집단이고 조직인 한 사회적 맥락 속에 있고, 그런 점에서 권력행위이다. 그 권력을 제어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다. 경영진단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고식(姑息)에 원인이 있다.

종교는 인간 삶의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영역이다. 인간의 삶은 합리와 계산으로만 구획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행위 또한 그렇다. 정행과 현신, 본능을 어떻게 유도하고 다스리느냐에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건강이 달려 있다. 이런 문제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실패하게 되어있다. 아니, 경제영역에서도 지금은 그동안 비경제적 요인으로 알려졌던 사회문화적 전통의 자산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가 운위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실질적으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종교와 직접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과 국가의 명운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 점을 기획예산위를 위시한 정부당국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줄 안다. 지금이라도 그런 적극적 인식과 정위(正位)를 토대로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세분하며, 기획과 사업을 늘여야 한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근시안적으로 집착해 인력을 줄이고, 직급을 낮추며, 종무서비스를 축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심모원려가 아니다. 21세기는 종교의 시대이다. 간곡히 재고를 촉구한다.

종교계도 국민연금 파문

보험료 일괄적 부과 항의 잇달아 조계종등 승려노후복지 준비 가속

국민연금 부과업무가 줄속으로 추진돼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로까지 파문이 일고 있다.

성직자의 경우 학생이나 군인(사병), 실직자 등과 함께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고있으나 상당수의 스님이나 목사 등에게도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 서울 사찰의 한 스님은 "대도시 스님들에게는 1백만원, 농촌지역 스님들에게는 1백만원 상당의 월 소득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보장이 없는 스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자 조계종 총무원회는 3월초 종보를 통해 △스님은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며 △이미 부과된 경우에서 승적부 사본을 관할 공단에 제시해 취소시킬 것을 당부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이면 당연히 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이어서 국세청 세금 납부자료와 직업별 과세 표준액, 의료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했다"면서 "봉사에 필요한 활동비 말고 다른 소득이 없는 성직자라면 납부 예외자로 인정되

므로 사유서를 지역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국민의 소득 가운데 30% 정도만이 국세청에 노출된 실정"이라면서 "면세 대상으로까지 분류된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실사를 통해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대부분 성직자들의 노후가 불안한 만큼 성직자들도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에 비해 노후 보장 혜택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당연히 세금도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자신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성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등 불교계는 이제 승려 노후복지문제를 위한 조사사업에 착수한 단계다. 조계종은 노스님들에 대한 열악한 복지환경이 주지적 분쟁과 주지 전횡, 사찰재산의 사유화 문제 등을 낳는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열반당'이나 함께 모여 수도를 하는 선원 형태의 양로원을 짓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3월의 호국인물 사명대사 추모행사

전쟁기념사업회(회장 홍은표)는 임진왜란 당시의 고승이자 승병장인 사명대사(1544-1610)를 3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하고 5일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사명대사 공적보고, 헌화, 묵념, 추모사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표창사 주지 신희스님(불교TV 사장), 조계종 문화부장 양산스님,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사명당기념사업회 박권희 회장, 이상조 밀양시장 등 군인·불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수련회 정보센터' 운영키로

조계종 포교국장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현)은 사찰수련회 활성화를 위해 포교원내에 '수련회 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6월경 개설할 예정인 수련회 정보센터는 △사찰수련회 정보를 취합, 이를 적극 홍보해 일반인의 동참을 권유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나 장소가 없는 사찰이나 단체에 장소 정보를 제공 △수련회 프로그램의 지원 및 협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성운 기자

포교원은 3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

고, 정보센터 개설에 앞서 사찰수련회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수련회 개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포교원장 정현스님과 포교원 부·국장, 과장, 16개 교구본사 포교국장들이 참석, 올해 포교원의 포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찰수련회와 중앙선도회 활성화 방안, 포교사 관리 방침, 신도등록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선운사주지에 법현스님 선출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에 현 총무국장 법현스님이 선출됐다. 선운사는 3일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법현스님을 무투표 선출했다. 법현스님은 1961년 월정사에서 회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7년 법주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흥사 불국사 총무국장, 총무원 포교국장, 분황사주지 등을 역임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중신회 대의원총회 13일 조계사 대웅전

조계종중앙선도회는 2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의원총회를 13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키로 했다. 중앙선도회는 대의원총회에 △98년 결산 승인 △99년 예산 및 사업계획 △회칙 개정 △임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또 회장 전형위원을 9인으로 구성키로 하고, 인원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정영스님 멸빈결의 3일 조계종 초심호계원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경)은 3일 제18차 심리를 열고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정영스님에 대해 멸빈을 각운스님에 제적을 관행, 문수, 보연, 성조, 원범스님 등 5명에 공권정지 10년, 보연·종연·활선스님에 공권정지 7년, 오심, 적문스님에 공권정지 5년을 각각 결의했다. 임연태 기자

공로상에 지광스님·경철 교법사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 결정...20일 시상

능인선원장 지광스님과 경찰 광주불교대학장이 조계종 제10회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인터뷰 3면>

조계종포교원(원장 정현)은 3일 공로상 2명을 비롯 원력상 8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20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거행한다.

포교대상은 매년 12월 선정했으나, 이번에는 지난 해 11, 12월 있었던 조계종사태로 늦어졌다. 또 종정상인 대상 수상자는 종정스님의 권위로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공로상(총무원장) 수상자로 선정된 지광스님은 어린이포교와 신도교육 활성화는 물론 해외에도 사찰을 건립하여 해외포교에도 진력하였으며, 각종 장학회 운영 및 복지활동을 전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경찰 광주 정광중학교 교장은 광주불교대학장을 역임하면서 불자양성

에 진력하였으며, 교법사로 재직하면서 청소년포교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원력상(포교원장상)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범미스님(통도사 부산포교원장) △재소자-정남복(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장) △경찰-김진홍(포교사단 경찰포교팀장) △일반-임완숙(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예술연예-김민중(가수) △청소년-이경석(파라미터청소년협회 연구위원) △군포교-박상길(군불교진흥회장) △방송-이영구(불교부산방송 총괄국장).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고침 지난 212호 2면 기사 중 생계사 승가대학 '정식인기'는 '가인기'로, 7면 소설 (진감곡사) 발행처는 '경서원'에서 '불교출판사'로 바로 잡습니다.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을 밝힙시다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마을. 이곳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마을은 현재 강원도 황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마을의 보금자리 건설불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하나를 밝혀 동체대비의 무량 복전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 △동참비: 1인1등 1만원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 △접수기간: 3월3일~5월 21일
-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체국 011809-0332390
- 농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후원해드립니다.

현대만평 박구원

참다운 방생...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머무시는곳

낙산사 흥련암 법당 해체 복원불사 모연문

낙산사 흥련암은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는 백화도량으로써 의상스님께서 7일 재계(齋戒)하시어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수정염주(水晶念珠)와 여의보주(如意寶珠)를 친히 받으신 곳입니다. 관음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굴 위에 법당을 창건하여 1200여년동안 중흥생의 영험 도량으로 오늘에 이르렀는바 동해의 해풍(海風)으로 인해 훼손정도가 심각하여 복원이 불가피하므로 이제, 불사의 대원력을 사부대중과 함께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수희공덕(隨喜功德)의 인연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3년 2월

■시 주 : 기동, 서까래, 단청, 기와 등

▶ 대표 전화 ◀	■ 대표 송금 온라인번호 ■
낙산사 : 0396)672-2447~8	국민은행 : 304-21-0686-334 (송태현)
흥련암 : 0396)672-2478	한빛은행 : 192-121972-12-101 (송태현)
	우체국 : 201491-0027377 (송태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흥련암 주지 지홍(송태현) 합장